

체제 전환의 인문학으로서 생태환경사

고태우**

위기의 역사화와 미래의 상상*

초록 자본주의와 화석에너지 체제, 대량생산·대량소비에 기반한 현대 문명은 지구의 행성 한계를 넘어서며 위기에 봉착했다. 이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발전과 자유에 관한 관념, 기존 학문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와 지구시스템을 함께 사유하며 생태문명으로서의 이행에 기여하는 ‘전환을 위한 인문학’이 필요하다.

생태환경사는 이러한 전환을 함께할 실천적 역사학이다. 그 연구의 방향은 첫째, 기후후변동과 사회의 대응, 화석에너지 체제와 대가속, 환경오염과 피해의 불평등을 추적하여 현재 위기의 역사적 경로와 책임 구조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인간 너머의 존재(more-than-human)를 역사적 행위자로 소환하여 행성의 역사가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과 물질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드러낸다. 셋째, 과거 사례를 통해 현재의 체제를 상대화하고 커먼즈의 활용, 순환경제 및 탈탄소 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생태환경사 교육은 기후·생태위기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갈등과 권력관계, 회복력을 분석하는 역사 문해력을 길러 생태시민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비인간 존재의 행위자성을 인식하는 다종 감각을 함양하고, 자연과학·사회과학·문학·예술을 결합하여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파국의 감각을 익히면서도 인간과 비인간의 대응과 회복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고, 복수의 미래 시나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이 논문은 2025년 11월 14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환경인문학 리딩 그룹이 주최한 제 1회 환경인문학 학술대회 “환경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의미, 가치, 서사”에서 발표한 원고를 대폭 보완한 것이다. 당일 토론을 해주신 김홍중, 한윤정 선생님과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부교수

리오를 생각하며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생태환경사는 과거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너머의 존재가 함께 거주할 미래를 설계하는 체제 전환의 인문학으로 확장될 수 있다.

주제어 전환을 위한 인문학, 생태환경사, 자본주의, 인간 너머의 존재, 역사 문해력, 파국, 생태시민, 생태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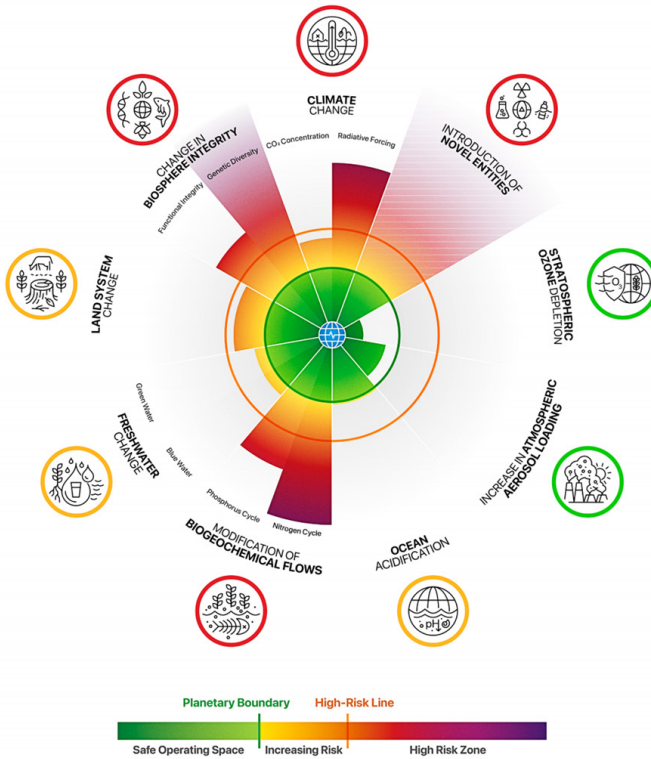
1. 체제 전환을 위한 인문학, 그리고 생태환경사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거주할 세상을 물려주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는 문명”¹을 만들었다. 2025년 9월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는 『2025 행성 건강 보고서』(*Planetary Health Check 2025*)를 통하여 지구 환경에 대한 9개 측정 항목 가운데 성층권 오존층과 에어로졸(대기오염 입자)을 제외한 7개 영역(기후변화, 생물권 보전, 토지시스템 변화, 담수 사용, 질소·인 등 생지화학적 순환, 해양 산성화, 합성 화학물질 등 신규 물질의 도입)에서 위험 한계선을 넘었다고 발표했다.² 2024년 보고서와 비교할 때, 해양 산성화가 최초로 한계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림 1).

우리 인간, 곧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 행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명을 만들어 놓고 다른 생명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존을 뒤흔들고 있다. 인간이 대기와 지질, 해양 등 지구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말 그대로 인류세(Anthropocene)의 도래는 역설적으로 인류와 비인간 생명체 전반에 위협을 가하는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 자연을 타자화하고 저렴하게 사용

1 브뤼노 라투르(2021), 박범순 옮김,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서울: 이음, p. 98.

2 Planetary Boundaries Science (2025), *Planetary Health Check 2025: A Scientific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Planet*, Potsdam: 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



출처: Planetary Boundaries Science (2025), *Planetary Health Check 2025: A Scientific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Planet*, Potsdam: 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 p. 29.

[그림 1] 2025년 지구 행성의 한계 상황

한 자본주의, 화석에너지 체제와 대가속(Great Acceleration)이 동반된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파괴’ 속에서 여러 생명체와 사물이 공존하는 지구는 행성적 한계에 도달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인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지구행성 내 인간 및 여러 행위자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구조에 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하나의 생물종으로서 자연에 속한 인간이 그 자연을 타자화한 인식 체제, 그 자연을 저렴하게 착취해 온 사회경제 체제 전환에 대한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파괴국과 파괴가 아닌 공존과 상생의 행성을 구축하

기 위해서는 인문학도 더 이상 인간 중심의 인문학이 아닌 인간 너머의 존재(more-than-human)와 지구라는 행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문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인문학을 일단 ‘전환을 위한 인문학’(Humanities for Transformation)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는 새로운 시대로서 인류세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인류세가 담보하고 있는 위기와 파국을 완화하고 새로운 생태문명/시대[토마스 베리의 ‘생태대’(Ecozoic Era), 도나 해러웨이의 ‘솔루세’, 조효제가 언급한 ‘지구의 한계 내에서 모든 존재의 좋은 삶’ 등]³으로 전환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문학이다. 그동안 한국학계에서만 보더라도 환경인문학, 생태인문학, 지구인문학, 인류세 인문학 등 인문학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⁴ 인문학 자체의 위기의식과 함께 근대문명의 문제를 제기하고 분과학문 체계의 타파를 지향한 점에서 여러 논의에 담긴 문제의식은 대동소이하다. 그러한 점에서 명칭 부여는 부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목표와 방향 설정은 중요하다. 이제 지구의 용량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시점에서, 체제 전환의 기본 목표는 행성의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간과 비인간 존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구축함을 기본 요건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 방향은 사회경제적으로는 성장주의와 대량소비를 기준으로 한 근대문명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문명사적 전

3 수많은 이들의 논의가 있지만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세밀하게 역설한 주장은 토마스 베리·토마스 클락(2006), 김준우 옮김,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인간과 지구의 화해를 위한 대화』, 고양: 에코조익; 구도완(2018), 『생태민주주의』, 대구: 한티재; 김종철(2019),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서울: 녹색평론사; 도나 해러웨이(2021), 최유미 옮김, 『트리블과 함께하기』, 서울: 마농지, 2장; 필립 클레이튼·윌리엄 앤드류 슈워츠(2023), 이동우 옮김, 『미래는 생태문명』, 서울: 산현재; 조효제(2025), 『불타는 지구에서 다르게 살 용기』, 파주: 창비 등 참고.

4 건국대 인류세인문학단(2020),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 1·2, 파주: 들녘; 이명희·정영란(2020), 『모빌리티 생태인문학』, 서울: 엘피; 김옥동(2021), 『환경인문학과 인류의 미래』, 파주: 나남출판; 허남진·조성환·이원진(2023), 『어떤 지구를 상상할 것인가: 지구인문학의 발견』, 서울: 모시는사람들 등 참고.

환, 화석에너지 체제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인식과 정서상으로는 인간 역시 토양·물·동식물·지역 공동체와 상호 의존하는 생명공동체의 일부라는 감각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하는 데 역할을 할 인문학은 기존의 인문학을 넘어서는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정치와 경제체제, 문화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문 분류에서 사회과학까지 포괄하는 더 큰 인문학, 그리고 인간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 인간 너머의 인문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는 상징 공간에 이합집산해 있는 여러 분과학문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역사학자 캐럴린 머천트(Carolyn Merchant)가 언급했듯이, 인류가 변화시킬 ‘인류세’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지구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⁵ 기후변화가 극심한 현재와 머지않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터전이 될 자연환경을 다시 생각해야 하며, 이는 과학뿐 아니라 인문학 자체의 혁신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인간 스스로 초래한 활동과 그 축적이 오늘날의 위기를 만들고 온 생명을 ‘멸종’의 위협에 놓이게 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문학과 기존의 분과학문 체제도 근본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역사학자 디페시 차크라바르티(Dipesh Chakrabarty)가 언급했듯이 인간 자유의 확대와 발전이라는 것은 화석에너지 체제에 기초하고 있다.⁶ 근대적 자유를 뒷받침하고 설계한 근원에는 기존 학문 체계가 존재한다. 대량생산 파괴 시스템, 화석에너지 체제부터 벗어나야 할 시점에 인문학을 포함한 기존 학문의 근간에 관한 전반적인 회의(懷疑)와 재정립이 요청된다.

5 캐럴린 머천트(2022), 우석영 옮김, 『인류세의 인문학』, 서울: 동아아시아.

6 Dipesh Chakrabarty (2021), *The Climate of History in a Planetary Age*,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디페시 차크라바르티(2023), 이신철 옮김, 『행성시대 역사의 기후』, 서울: 에코리브르].

이 글에서는 체제 전환을 위한 인문학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이에 부응하는 실천적 역사학으로서 생태환경사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생태환경사는 기존의 환경사에 생태적 관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만든 용어이다. 환경사는 인간과 자연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역사로 볼 수 있다. 생태환경사는 기존 환경사의 방법론에 더하여 인간 자신, 비인간 존재, 지구 생태계 모두를 착취해 온 근대문명과 그 저변에 깔린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생태환경사 연구는 현재 인류문명의 위기 상황에 대한 역사학의 학문적 대응이라 할 수 있고, 학문의 실천성을 부여하는 작업의 일환이다.⁷ 여기에서는 생태환경사 연구와 교육 방안을 생각해 보고 체제 전환을 위한 인문학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2. 생태환경사 활용 방안: 연구

새로운 역사학으로서 생태환경사는 근대문명을 극복하고 위기에 대응할 또 다른 서사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행성의 한계를 넘게 된 여러 위기의 역사적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역사학의 주요한 미덕은 현재 상황이 만들어진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에너지 전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하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역사 속 비인간 존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이다. 인류세의 파국을 빚어낸 인간의 역사에만 주목하지 않고 인간 너머의 존재(more-than-

7 생태환경사의 탄생 배경과 의미, 연구의 방향 제시는 고태우(2025), 「연구노트: 한국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 생태환경사」, 『생태환경과 역사』 14, 한국생태환경사연구소·한국생태환경사학회, pp. 256~260; 고태우(2023), 「대가속의 어두움: 20세기 한국의 역사는 발전의 역사인가?」, 『역사학보』 257, 역사학회, pp. 30~33 참고.

human)가 역사에서 차지한 위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이다. 이 행성의 여러 행위자, 힘과 네트워크가 인간에 의해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다른 존재와 인간이 공생하는 관계라는 점을 일깨우면서 지구행성에서의 새로운 관계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실천의 차원에서 전환, 대안의 가능성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연구이다. 예컨대 현재의 위기를 낳은 자본주의, 화석에너지 체제는 영속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정도의 역사가 있으며, 그것이 형성된 데에는 나름의 역사성이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본주의, 화석에너지 체제 이전의 과거 역사에서 전환을 위한 가능성을 찾아보는 작업도 가능하다.

2.1. 어떻게 위기를 맞이하고 대응했는가?

위기와 그 대응에 관한 역사 연구로서, 먼저 기후변동에 대응해 온 역사로서 기후사 연구를 꼽을 수 있다. 기후사는 고기후학과 고고학, 경제학, 지리학, 역사학 등의 다학제 연구가 활발한 분야이다. 기후 관련 자료와 그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로 기후 예측 모델링에 활용되기도 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남겨진 기온과 강수량, 풍속 등을 보여주는 문헌과 대체 자료(proxy data)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문헌과 다른 자료를 비교하면서 더욱 정교한 시계열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⁸ 이렇게 마련된 시계열 데이터는 미래의 기후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와 지역사회의 대응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기후 문제에 시사점을 찾을 수도 있다.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은 지구의 미래 기온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지만, 기후위기가 심해지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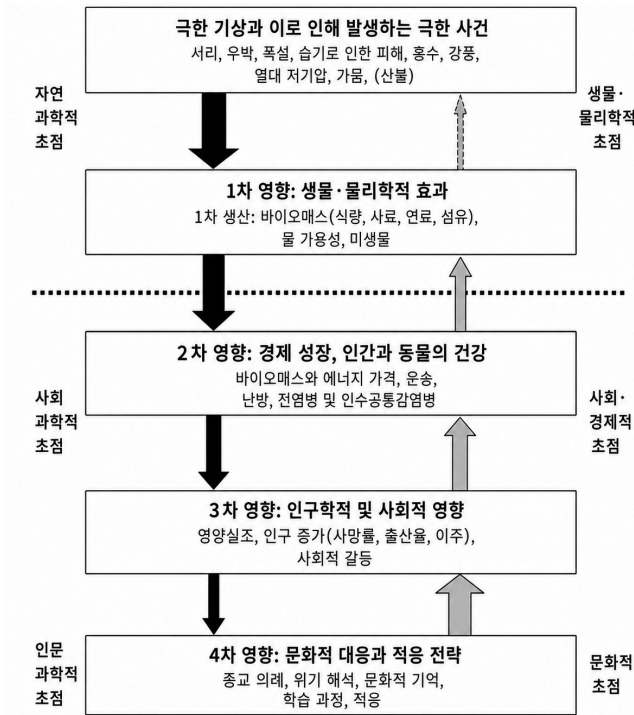
8 전 세계 기후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 사례로는 다음을 참고, Brázdil, R. et al. (2023), "DOCU-CLIM: A Global Documentary Climate Dataset for Climate Reconstructions", *Scientific Data* 10, 402, <https://doi.org/10.1038/s41597-023-02303-y>.

에서의 사회적 결과를 알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후와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정 사회, 정치체가 어느 정도의 대응력과 회복력(resilience)을 보여주는지는 역사 문헌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를 ‘기후와 사회의 역사’(History of Climate and Society, HCS) 연구로 부르기도 한다.⁹ 기후사 연구는 기후변화의 실제 상황과 농업 생산, 인구, 이주, 무력 충돌 등의 상관관계를 가늠해 보고, 특정 사회의 정치적·제도적 적응, 기술 혁신 노력 등의 대응과 회복력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분야이다.

[그림 2]는 기후 또는 극단적인 날씨와 사회의 상호관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1차적인 영향은 자연과학 차원에서 생물·물리학적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2차로 경제 성장이나 인간 및 동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3차로 인구 증가/감소나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종교 의례나 사회 약자에 대한 박해 또는 제도 개선 등 문화적인 전략이 채택될 수 있다. 이처럼 기후 변동은 인간 사회에 여러 차원의 영향을 줄 수 있고, 인간 사회의 적응 및 대응 전략에 따라 다양한 역사 전개가 일어날 수 있다. 다양한 역사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할 구체적인 서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에너지 혁명을 통한 생산성의 팽창을 낳고 현재 기후위기의 핵심 사안이 된 화석에너지 체제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기후위기, 탄소 중립에 관한 문제의식과도 연결되어 에너지 전환에 관한 관심이 역사학계에도 영향을 주면서 에너지 역사에 대한 국내 학계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동국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주로 석유를 중심으로 근현대 에너지 역사 연구 현황을 정리하는 작업에서 출발하여 에너지 역사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진은 미국과 한국, 중국의 석유사, 일본의 석탄사 연

9 HCS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구를 위한 연구 가설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글로는 다음을 참고, Dagomar Degroot et al. (2021), "Towards a rigorous understanding of societal responses to climate change", *Nature* 591, <https://doi.org/10.1038/s41586-021-03190-2>.



출처: Christian Pfister, Sam White, and Franz Mauelshagen (2018), “Ch. 1. General Introduction: Weather, Climate, and Human History”, *The Palgrave Handbook of Climate History* (ed. by Sam White, Christian Pfister and Franz Mauelshagen), London: Palgrave Macmillan, p. 5의 그림을 ChatGPT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하고 가공함.

비고: 화살표 굵기는 각 단계별 영향의 세기를 의미함.

[그림 2] 기후-사회 상호작용 모델 사례

구사를 파악하면서 에너지 역사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¹⁰ 기존의 에너지사 연구에서 주목했던 지정학·지경학적 차원의 연구, 곧 석유, 석탄 등 자원을 둘러싸고 국가와 기업, 전쟁과 외교가 동반되었던 과정, 아시아·태평양의 국제 에너지 네트워크 속에서 석유가 갖는 중요성, 여러 지역의

10 양홍석·권오수·김택경·김경옥·안재익(2025), 『검은 물질의 혁명: 현대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 선인.

문서고 발굴의 필요성 등이 잘 제시되었다. 석유와 석탄을 경제의 단순 배경이 아니라 역사 전개 과정에서의 핵심 물질로 다루면서, ‘물질사’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도 중요한 성과이다. 다만 체제 전환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본고의 관점에서 보자면, 생태환경사 차원의 문제의식은 그리 깊지 않다.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생태적 비용, 화석에너지 체제의 편익과 피해의 불균등성, 화석에너지 체제 형성 과정에서 각 사회와 사람들의 심성과 문화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 향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김덕호와 박진희, 이은경은 『지구를 태워 만든 풍요』에서 에너지를 근대문명을 만든 토대로 파악하고 기후위기를 지난 300여 년간 누적된 역사 속에서 정리했다. 또한, 이 책은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한 점에서 본고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저자들은 인력과 축력,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의존하던 저에너지 사회에서 석탄·석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고에너지 사회로 이행한 과정을 서술했다. 석탄과 증기기관의 결합은 인간을 자연과 시공간 구속에서 해방시켰고, 석유는 양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자원적 중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등장한 탄소 문명은 에너지 풍요를 기반으로 한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으로써 ‘탄소스러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다(1~2부). 20세기 후반 이후 서구를 중심으로 한 탄소 문명과 ‘탄소스러운’ 생활 방식은 전 지구로 확대되었다. 이후 1973년 석유 위기와 1990년대 기후위기가 대두하면서 이제는 탄소 문명이 지구 한계에 직면하는 시점에 다다랐다(3부). 한국에서도 탄소 문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저자들은 해방 직후 석탄 증산 정책, 이후 석유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 아파트와 자동차로 상징되는 일상생활에서의 탄소 문명화, 한국에서의 탄소 문명 관성이 기후위기에 미지근한 대응을 낳은 문제 등을 서술했다(4부).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¹¹

— www.kci.go.kr

11 김덕호·박진희·이은경(2026), 『지구를 태워 만든 풍요: 탄소 문명의 빛과 그늘』, 서울:

이 책은 한국에서의 에너지 역사 연구와 교육에 기본 교재가 될 만하다. 화석에너지 체제, 다시 말해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화석연료 부상과 그로 인한 권력관계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동반한 체제가 탄생하여 전 세계로 확장된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화석에너지 체제 형성과 팽창까지 거시적으로 정리한 점에서 향후 계속 참고문헌으로 쓰일 만하다. 다만 향후 연구의 발전, ‘전환을 위한 인문학’의 관점에서 후속 과제로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첫째, 영국과 서구 중심의 에너지 전환 서사에 제국과 식민지의 문제가 더욱 보완될 필요가 있다. 탄소 문명의 기술 및 산업의 중심이 영국에서 형성된 점은 자명하지만, 그 물질적 조건과 비용은 제국과 식민지를 포괄한 세계체제 속에서 만들어졌다. 에너지 전환에 식민주의와 불균등한 생태적 교환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 둘째, ‘풍요’가 누구의 풍요였는지 더 비판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탄소스러운’ 생활과 풍요가 20세기 후반에 전 세계로 확장된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과 비인간,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 한 국가 내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젠더, 기성 세대와 미래 세대 등의 차이를 동반한 불균등한 풍요라는 점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셋째, 탄소 문명의 문제가 생태계 파괴로 연결된 생태위기의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채굴 과정에서의 지형과 수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감소, 화석에너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 정유·석유화학산업과 독성물질의 문제 등 여러 상황에 대한 설명이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서술과 정보의 제공은 현재의 탈탄소 문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차별 문제, 지구 생태계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문제를 일정하게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근대라는 이름 아래 구축된 생산 체계가 풍요와 진보를 만들어내는 데 머물지 않고, 인간의 삶과 자연의 재생산 기반을 훼손하는 파괴 체계로 전

환경된 상황에서, 생태환경사는 ‘대가속’과 환경 파괴의 역사를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 바로 위에서 화석에너지 체제 형성 및 전개 과정과도 연결되는 것이지만,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 생산과 에너지 소비, 도시화와 대량소비가 급격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기·수질·토양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특정 지역과 계층, 노동자와 주민에게 어떻게 불균등하게 집중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환경오염과 파괴 문제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¹² 여전히 오염과 파괴의 구체적인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산업 시설의 입지와 오염물질의 배출, 주민의 건강 피해와 생계 기반의 훼손, 생태계 변화와 지역사회의 대응을 서로 연결하는 기초 연구가 우선 요청된다. 더 나아가 기존 연구가 주로 정부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집중해 온 것과 달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확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핵심 행위자인 기업을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기업이 생산과 투자, 기술과 안전관리, 피해보상과 여론 대응에 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및 규제기관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밝히면서 환경 파괴의 구조적 원인을 설명해 가야 할 것이다. 기업 연구가 미진한 것은 관련 자료가 비공개되거나 연구자의 접근

12 최근 성과만 거론하면 원주영(2020), 「디젤 자동차 시대의 대기오염 관리: 1960-70년대 한국 정부의 공해차량 단속과 책임의 개인화」, 『환경사회학연구 ECO』 24-1, 한국환경사회학회; 고태우(2021), 「1970년대 한국의 공해(公害) 상황과 재난 인식」, 『개념과 소통』 28,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신재준(2021), 「1970년 전후 공해(公害)의 일상화와 환경권 인식의 씨앗」, 『역사문제연구』 45, 역사문제연구소; 양지혜(2021), 「근현대 한국의 광업 개발과 ‘공해(公害)’라는 느린 폭력」, 『역사비평』 134역사비평사; 이슬기(2021), 「농약을 중심으로 본 녹색혁명: 1970년대 증산과 공해에 가려진 농약 중독」, 『한국과학사학회지』 43-1, 한국과학사학회; KANG Yeonsil(2021), 「Transnational Hazard: A History of Asbestos in South Korea, 1938-1993」, 『한국과학사학회지』 43-2, 한국과학사학회; 고태우(2024), 「공해의 민중사: 1970년대 한국의 공해재난과 반(反)공해운동」, 『학림』 53, 연세사학연구회 등.

이 제한된 현실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자본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거나 비판하기 어려운 신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학계의 문제 설정과 연구 관행에도 일정하게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2.2. 인간 너머의 존재를 어떻게 소환할 것인가?

생태환경사는 그 탄생부터 역사가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인간과 생태환경의 상호관계에 주목해 왔다. 인간이 지구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지질학적 힘이 되고 ‘제6의 대멸종’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 시점에서, AI와 이를 동반한 로봇이 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사이보그 인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역사학의 경우 인간 너머의 존재를 역사 서술에 더 많이 소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구의 역사와 생태적 네트워크가 인간의 의지와 활동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미생물, 물질, 기후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와 힘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져 왔음을 밝힐 수 있다. 나아가 인간 역시 다른 존재들과 분리된 주체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함으로써, 지구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관계와 삶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디페시 차크라바르티가 언급한 종적인 사고(species thinking)가 필요하다.¹³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분리된 예외적 존재로 전제하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수많은 생물종 가운데 하나이자 다른 종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종적 사고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양사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동사’(人

13 차크라바르티는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등이 현재의 위기를 고찰할 때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종으로 보는 것이 유용하다는 언급을 인용하며, 종적인 사고를 통한 생명의 역사와 인간 중심으로 진행된 자본의 역사를 교차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Dipesh Chakrabarty (2021), pp. 43-45.

動史, humanimal history)와 같이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의 관계를 함께 포괄하는 역사 서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⁴ 생태환경사 또는 인동사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존과 이동, 생산과 소비, 전쟁과 도시화는 가축과 야생동물, 병원체와 곤충, 작물과 숲, 토양 등 다양한 비인간 존재들의 활동 및 변화와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 따라서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작용을 역사 변화의 부차적 배경이 아니라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다루는 새로운 역사 서술이 요청된다.

그러나 인간 너머 존재의 목소리를 듣고 역사의 한 구성원으로 소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민중과 여성이 역사 속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동물이나 사물은 더더욱 스스로 기록을 남겨놓지 않거나 남길 수 없다. 그럼에도 민중사, 여성사, 소수자 역사의 전략과 유사하게 동식물, 사물과 관련하여 남긴 인간의 텍스트를 최대한 동원하여 그들의 역사를 두껍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문학예술 작품에 보이는 존재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기후사에서 시도되는 것과 같이 문헌을 보완할 대체 자료 역시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된다. 기후와 기상·지질 자료를 비롯해 고고학 유물이 동원되어야 하고, 동물행동학이나 식물생태학, 환경과학에서의 연구 방법론을 과거 자료에 도입해 분석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비인간의 행위를 서술할 때 인간의 의도와 감정이 투사되지

14 송충기는 동물을 인류와 같은 주체로서 파악하는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을 소개하고, 동물이 더 이상 역사학의 대상이 아니라 동물 그 자체로서의 역사로서 이해하려는 서구학계의 연구를 소개했다. 또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구축하는 동물사 또는 인동사의 시각을 제시했다. 송충기(2018), 「역사학에서 '동물로의 전환(Animal Turn)': 짐승의 사회문화사에서 포스트휴머니즘」, 『서양사론』 139, 한국서양사학회; 송충기(2021), 「19세기 함부르크 도축장의 근대성: 인간과 동물, 그리고 사물 사이의 연결망(Networks)」, 『독일연구』 46, 한국독일사학회; 송충기(2022a), 「19세기 독일지역 동물보호협회의 초기 담론: 인간중심주의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동화(同化) 관계로」, 『독일연구』 50, 한국독일사학회; 송충기(2022b), 「역사 속의 비인간: 포스트휴머니즘 역사학의 현황과 쟁점」, 『역사학보』 256, 역사학회.

않도록 하는 세심함도 있어야 할 것이다.¹⁵

이상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에서도 인간 너머 존재를 소환할 연구 주제는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¹⁶ 고대로부터의 사냥과 가축 사육, 산림천택(山林川澤)과 야생동물의 생태에서부터 근현대의 도축업과 축산업, 동물원, 실험동물·반려동물 문화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다른 생명체가 맺어온 관계를 장기적인 시야에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호랑이·늑대·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에 대한 인식과 포획, 식민지기의 해수구제(害獸驅除) 정책, 전쟁에서의 군마와 군견 동원, 산업화 이후 공장식 축산의 확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 등은 국가권력과 과학기술, 자본주의 생산체계가 동물의 생명과 죽음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동물 보호 담론과 제도의 형성, 동물 학대와 학살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도시개발과 서식지 파괴가 야생동물에게 미친 영향도 인간 중심적 역사 서술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동물을 인간의 관념이나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소재로만 활용하지 않고, 동물의 행동과 생태적 특성,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반응이 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함께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동물사뿐만 아니라 식물과 미생물, 물과 토양, 광물과 같은 다른 생명체와 물질의 역사로도 확장될 수 있다. 벼, 면화, 담배와 같은 작물 재배가 노동과 토지 이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외래식물과 산림 정책이 지역 생태계를 어떻게 재편했는지, 병원체와 해충이 국가의 방역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역사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에너지 체제에서도 보았듯이 석탄·석유·플라스틱·방사성물질과 같이 인간이 채굴하고 가공한 물질이 산업과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오염

15 인동사와 물질사 서술의 어려움, 브뤼노 라투르 등 포스트휴머니즘 이론이 역사학에 미친 쟁점에 관해서는 송충기(2022b) 참고.

16 최근 한국사에서의 인간-동물 관계를 생태환경사, 과학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저서는 문만용·김미숙 엮음(2025), 『동물, 환경, 그리고 한국 과학사』, 서울: 솔과학.

과 폐기물, 질병과 기후위기를 초래한 과정도 연구 대상이 된다. 이러한 연구는 비인간 존재를 단순한 자원 또는 배경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과 인간 너머의 존재가 상호작용하며 공동으로 역사를 형성해 왔음을 드러낸다. 종적 사고에 기초한 생태환경사는 다양한 생명과 물질의 얽힘 속에서 과거를 다시 이해하고, 인간과 비인간이 마주치는 세상을 그려가는 역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2.3. 전환, 대안 모색을 위한 역사적 상상력

다음으로 위기 해소 및 체제 전환 또는 다른 대안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실천적 역사학으로서의 연구 사례를 소개한다. 독일 역사학자 아네테 케넬(Annette Kehnel)은 지난 200년간 만들어진 근대가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고 전제하면서도, 기후변화 등이 불러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사고방식에 걸든 상황, 새로운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 듯한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래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과거로 지평을 확장하자고 제안하며 산업혁명 이전 시기 중세 유럽을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그는 근대 경제학이 화폐가치와 생산성, 성장률을 중심으로 경제를 정의하면서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를 빈곤과 결핍, 비효율로 바라보는 점을 문제시했다. 근대 이전 인류의 삶은 오늘날에 비해 불안정하고 가난해 보이지만, 19세기 노동자에 비하여 이전의 노동자는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적었고, 자신의 작업시간을 정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지역도 있었으며 90일 넘는 휴일도 있었다고 보았다. 케넬은 기후위기 등 21세기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만 기능하는 시장이 아닌 재화의 분배까지 생각하는 시장이 필요하고, 근대의 시각에서만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의 한계를 벗어나자고 주장했다.

근대의 시야를 벗겨내면 중세 유럽은 여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

간이 된다. 베네딕트 수도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도원은 공유공동체이자 공동사용을 실현해 온 생활공동체였다. 수도사들은 스스로 채소를 경작하고 빵을 굽고 신발을 만들었으며 옷과 음식, 침구류를 집단으로 공급했다. 수도원에서 만든 상품은 인기가 좋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전통사회에서 숲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곳이었었는데, 세계 곳곳에서는 숲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 주민들이 공동 규칙을 만든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현대의 선형 경제(linear economy)는 이윤 추구가 핵심 원리로 작동하기에 자원을 사용한 뒤 버리는 경제 시스템이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예외적이며,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의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새 제품 생산 못지 않게 고장 난 물건을 수리하고 재판매하는 경제가 중요했다. 전근대 도시에서는 다양한 수산업이 존재했고 중고시장이 발달했다. 중세와 르네상스의 건축에서는 고대 건축물의 돌, 기둥, 조각과 벽돌을 떼어 새로운 건축물의 자재로 재활용하는 일이 흔했다.

이 밖에 저자는 근대 이전 유럽의 금융제도, 기부와 재단, 미니멀리즘도 분석했다. 가난한 이를 위한 소액대출은행과 다양한 신용관계, 농민이 가축을 살 돈이 없을 때 소유자가 소를 빌려주고 새끼나 생산물을 분배하는 계약이 존재했음을 언급했다. 토지나 자산을 특정 목적에 귀속시키고 그 수익으로 다리 건설, 병원 운영, 빈민 구호, 교육활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재단 형태의 장치도 발달했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디오게네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사례에서 보듯이 자발적으로 무욕의 자유를 칭송하고 자연에 순응한 미니멀리스트들이 존재했는데, 12세기 이후 ‘적을수록 좋다’는 원칙 아래 부의 공정한 분배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등장했다.¹⁷

이처럼 중세 유럽에서 공유지, 공유공동체, 재활용의 경제, 화폐에만 의존하지 않는 금융제도 및 신용관계, 기부와 미니멀리즘의 다양한 역사상이

17 아네테 케넬(2022), 홍미경 옮김, 『미래가 있던 자리』, 서울: 지식의날개.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네테 케넬은 어떠한 과거도 완벽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으며 모든 시기의 문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¹⁸ 그럼에도 근대 이전 유럽에서의 공유와 순환 경제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목들은 자칫 근대 이전 시기를 낭만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개한 여러 가지 대안 경제의 양상들이 당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는지도 더 고찰할 여지가 있다. 중세의 순환 경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력과 에너지, 물질의 부족에 따른 대응 양상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사회에 신분제라든가 상시적인 빈곤, 높은 사망률, 종교적인 강제 등 억압적 사회경제 상황이 존재한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자의 말대로 현재의 자본주의나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경향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사례라든가, 이 시대의 대전환을 위한 비교 자료 또는 현재 체제가 영속하지 않은 것임을 상대화하는 소재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소 길게 중세 유럽의 지속가능한 면모를 들여다본 연구를 소개했는데, 한국사에서도 공유지, 공동자원 관리의 사례, 사유경제만이 아닌 다른 공간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오항녕은 조선시대 공유지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그는 조선시대 공유지(the Commons)를 재산과 같이 ‘처분할 수 있는 소유’와 대척되는 것으로, 왕토(王土)라는 국가적 주권 아래 공물이 부과되는 공간이자 백성의 관습적 접근권과 이용권이 인정된 산림천택에서 찾았다. 주민들은 농경지 바깥의 공간에서 물고기와 산나물, 버섯, 땔감, 사료와 야생동물을 얻었다. 물론 이는 일정한 이용 규율과 강제가 작동하는 공간이었다.¹⁹ 보기로 『쇄미록』의 오희문 일가는 임진전쟁(壬辰戰爭)으로 전답과 가옥 등 기존 생활 기반이 무너지자, 산림천택을 피난처로 삼고 산나물과 나무껍질을 채집하며 물고기·땡·노루 등을 확보하였다. 이들 자원

18 아네테 케넬(2022), p. 14.

19 오항녕(2023), 「공유지(the Commons), 문명사 전환의 키워드」, 『생태환경과 역사』 11, 한국생태환경사연구소·한국생태환경사학회.

은 식량과 회복식, 제사·접대 음식, 저장식과 증여품으로 이용되었다.²⁰ 공유지는 전답 경작, 친족·이웃의 증여, 관청의 진휼, 물물교환 및 시장교환과 결합하여 평시의 생계를 보완하고 전란기의 생존을 지탱한 생활 기반이었다.

오항녕의 조선시대 공유지 연구가 갖는 의미는 사적 소유, 상품시장의 확대를 곧 발전의 지표로 생각해 온 연구 관행, 나아가 근대 역사관을 상대화하는 데 있다. 공유지는 근대 이전의 미성숙한 소유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생존자원에 접근하며 삶을 지탱한 안전망이었다. 그러나 일찍이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갈파했듯이 자본의 본원적 축적은 농민을 토지와 공유지로부터 분리해 임금노동과 상품시장에 의존하게 했고, 국가와 자본은 공유지를 흡수해 갔다. 그러므로 공유지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은 자본주의/상업화 이전의 생활상을 복원하는 것이면서, 현재의 시장·사유재산 중심 체제가 결코 자연스럽고 유일한 방식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끊임없는 자본 증식과 사유화에 맞서 생존과 자립에 기초한 다른 문명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작업이기도 할 터이다.

공유지, 커먼즈는 과거로 회귀하는 모델이 아니라 미래의 사회생태 체제를 설계하는 비판적 자원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가이 스탠딩이 언급한 것처럼 현대의 커먼즈는 토지와 물, 숲, 하천 등 생태환경의 영역뿐 아니라 공공주택과 대중교통, 도시공간에 걸치는 사회 커먼즈, 법률구조, 사회보장과 같은 시민 커먼즈, 박물관과 도서관, 언론, 문화유산 등에 이르는 문화 커먼즈, 교육과 정보, 데이터, 세대 간 지식의 지식 커먼즈 등 다양한 영역에 이른다.²¹ 여러 분야에 닿을 수 있는 보편적 접근권과 민주적인 관리,

20 오항녕(2025a), 「조선시대 일상과 피난, 그리고 공유지(共有地): 오희문(吳希文)의 『쇄미록(瑣尾錄)』에 나타난 생존과 생계」, 『인문과학연구』 84,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오항녕(2025b), 「조선시대 고기잡이와 생존·생계: 공유지 천택(川澤)의 선물」, 『생태환경과 역사』 14, 한국생태환경사연구소·한국생태환경사학회.

21 가이 스탠딩(2021), 안효상 옮김, 『공유지의 약탈: 새로운 공유 시대를 위한 선언』, 파주: 창비.

생태적 재생산 등이 어떻게 시장과 권력관계에 침해받지 않으면서 확보·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 속 공유지에도 정치경제 권력과 인민 사이, 특정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 사이에 경합과 갈등, 투쟁과 차별이 있어 왔다. 이 과정에서의 한계 역시 연구하면서 현재의 커먼즈를 어떻게 포용적이고 생태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3. 생태환경사 활용 방안: 교육과 사회적 공헌

3.1. 생태시민으로서의 역사 문해력, 다종 감각 기르기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의 방향과 결과는 여러 현장에서의 교육과 시민 사회와의 소통으로도 연계될 수 있다.

첫째, 위기를 이해하는 역사 문해력을 키우고 생태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사 연구와 교육은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기후변화의 미래를 준비할 때 기후과학 지식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과학은 가설에 따라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대개 기술적이고 정량적인 해결책에 국한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겪은 경험과 기후·기상에 대한 인식,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된 사회문화적 요소에 관한 이해이다. 기후변화에 인간과 사회가 어떠한 취약성을 보였는지, 또한 어떠한 탄력적인 회복력을 보이며 살아갔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²² 환경사학자 마

22 박혜정(2021), 「역사와 기후의 조우: 지질적 행위자로서의 인류를 위한 기후사」, 『문화역사지리』 33-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 96; 박혜정(2024), 「기후위기 시대의 융합교양교육: 기후과학, 지구시스템과학/환경과학, 기후사를 주축으로」, 『교양교육연구』 18-

크 캐리(Mark Carey)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성패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기후과학이 아니라 “사회관계, 권력의 동학, 가능한 기술, 신념, 종교, 과거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라고 단언한 바 있다.²³ 독일사학자 박혜정도 “미래기온이나 빙하량 변화는 기후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사회적 결과의 예측은 매우 불확실하다. 바로 여기에 질적 연구로서의 기후사 연구가 필요하고 차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²⁴ IPCC의 기후변화 예측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간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현재의 기후변화 문제에 견주어 토론해 보는 수업을 꾸리는 것이 위기를 감지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쌓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생태환경사 교육은 역사 속 여러 환경 갈등 사례를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생태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앞의 공유지 연구 사례에서 보이듯이 숲과 하천, 갯벌 등은 목재와 단백질 공급처이자 생존을 위한 자원 확보처이면서 수취 대상으로 국가 재정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울창한 숲이나 은신처가 될 곳은 통치권력에 저항하는 반란군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태환경, 산림천택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들이 경합하는 역사를 살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의 산림과 소나무는 조선 정부와 지방 엘리트, 지역민과 여러 중개인 사이의 여러 권리와 행위가 경합

1, 한국교양교육학회, p. 45; Matthias Schmidt, Jens Soentgen, and Hubert Zapf (2022), “Anthropocene: Perspectives from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DIE ERDE – Journal of the Geographical Society of Berlin* 153(3), <https://doi.org/10.12854/erde-2022-618>, pp. 183–184.

23 Carey, M. (2012), “Climate and history: A critical review of historical climatology and climate change historiography”,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 Climate Change* 3(3), p. 242[박혜정(2024), p. 45에서 재인용].

24 박혜정(2022), 「역사, 기후, 교육: 인류세 시대 기후사 연구와 교육」, 『역사교육논집』 79, 역사교육학회, p. 191.

하는 공간으로 해석된다.²⁵ 이 경합 양상을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 자연환경이 갖는 공유지로서의 성격을 토론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용수 확보나 전력 생산을 위해 지어지는 댐과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 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인프라를 건설하게 되었는지, 국가/식민권력과 지역사회, 자본 사이에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지역사회 내부에서 개발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었는지, 인프라 건설 이후 생태환경 변화는 어떠했는지 등 과거 사례에서 다양한 환경 이슈를 점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환경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당사자 간 조절, 수용성 문제, 환경정의의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숙의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둘째, 인간 중심의 역사를 넘어서는 다종 감각(multispecies sense)을 기를 수 있다. 앞서도 보았듯이 생태환경사, 인동사 연구는 인간과 인간 이상의 존재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여러 시대에 존재한 동식물에 대한 인간 인식의 변화상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과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가 인간 이상의 존재들과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에 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역사 연구가 보여주었듯이 소와 말을 동물 프롤레타리아트로 보면서 그들의 태업, 거식, 아픔을 일종의 역사적 계급투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며, 질병사 연구에서 보듯이 인간의 의도와 기획을 좌절시킨 미생물 또는 동물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존재의 행위자성을 드러내는 작업도 가능하다.²⁶ 대멸종을 일으키는 인간의 상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이상의 존재 사이에 다른 관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5 John S. Lee (2017), "Protect the Pines, Punish the People: Forests and the State in Pre-Industrial Korea, 918-1897", Harvard University Ph.D. Dissertation.

26 동물사의 문제의식과 연구의 여러 갈래는 이종식(2025), 「동물사(Animal History)의 문제의식과 서사 전략: 영어권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65, 역사학회 참고.

2024년 8월 핀란드 오울루에서 열린 제4회 세계 환경사 학술대회에서 한 패널의 대화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과 미생물, 토양, 바다, 대기 등이 어떻게 역사 과정의 구성 요소가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두 사례만 소개하면, 패널의 일원인 티르자 마이어(Tirza Meyer)와 수잔나 리드스트롬(Susanna Lidström)은 스웨덴 왕립 공과대학교 환경인문학연구소의 ‘매개된 행성’(Mediated Planet)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들은 심해 열수 분출구의 이미지 변화를 소개했다. 열수 분출구는 생명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광합성이 아닌 화학합성을 통해 생존하는 생명체들이 풍부한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열수 분출구는 1977년 갈라파고스 해령 근처 해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그곳의 생명체와 생태계에 사람들은 생명의 “경이로운 서식지”로 놀라워했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간 더 많은 열수구 생태계가 발견되면서 열수구는 채굴을 위한 ‘귀중한 자원’으로서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이제 열수구는 훼손되지 않은 생태계로서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입장과, 경제적 잠재력이 큰 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²⁷ 생태환경사 연구라 하기는 어렵지만 환경인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특정 생태계가 인간의 문화와 만나 새로운 경합의 공간이 되어가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확장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는 일은 사실 지구 곳곳에서 발생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패널인 산드라 스와트(Sandra Swart)는 남아공 케이프 지역의 개코원숭이(baboon)와 인간의 관계를 동물사 관점에서 연구했다. 이 지역에는 인간의 활동 영역이 확장하면서 개코원숭이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다. 비록 개코원숭이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범망을 피하여 인간에 의해 개코원숭이가 죽거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인간

27 Libby Robin, et al. (2025), “Transdisciplinary Histories and the Rise of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Global Environment* 18(1), <https://doi.org/10.3828/whpge.6383764662251>, pp. 146–147.

과 개코원숭이 사이에는 더 깊은 역사가 있음을 밝혔다. 본래 개코원숭이는 포식자의 접근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인간에게 도움이 되었으나, 인간이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면서 개코원숭이는 인간의 식량과 가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때부터 그들에게 밤의 공포이자 마녀의 수호령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²⁸ 개코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긴 안목으로 제시하면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가능성을 제공하는 연구이다.

셋째, 구체적인 교육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도와 사정이 허락한다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문학과 철학, 예술 등 여러 학문 분야의 배경을 가진 교육자가 참여하는 팀 티칭이 이뤄지면 좋을 것이다. 기후과학과 지구시스템, 과학기술과 에너지사, 농업 방식과 식량체제, 환경철학과 생태윤리, 문학·예술 작품에서의 자연관, 환경정책과 생태법 등이 교육 내용에 반영되면 생태환경사 교육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사회경제 체제와 인식의 전환이 전 사회 분야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하나의 교육에 반영될 때 위기 대응과 전환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에도 더욱 풍부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

교육에서 물과 나무, 벌과 비버, 암석의 등장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환경사, 다종 역사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문화가 융합된 공간이나 환경 분쟁이 일어난 현장을 방문하는 생태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인간 너머의 존재를 이해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차원에서 그림과 설화, 소설 등 문학·예술 작품을 더 많이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술 인터뷰를 가미하여 산업화와 공해의 역사를 돌아보는 프로젝트도 수행할 수 있다.²⁹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 참여자들은 인간이 생태

28 Libby Robin et al. (2025), pp. 151–153.

29 전국역사교사모임(2024), 『더 늦기 전에 시작하는 생태환경사 수업』, 서울: 휴머니스트, 2부; 공혜정·김지연·이현숙(2025), 「『생태환경과 인간』 대학 교양 교과목 개발 사례 연구」, 『생태환경과 역사』 15, 한국생태환경사연구소·한국생태환경사학회 등에서도 자료

환경에 해를 끼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길고 복잡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인간 너머의 비인간 존재가 갖는 능력을 확인할 수도 있다.³⁰ 인류세가 인간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 너머의 존재들이 살아가는 과정이 얹혀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2. 파괴의 감각, 미래에 대한 상상력

기후·생태위기의 심각성과 문제점만을 강조하면 오히려 인류세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역효과를 볼 수 있다. 환경사에서 나타나는 ‘내리막길 서사’(declensionist narrative)에 대한 문제점이 예전부터 지적된 것도 이 때문이다. 환경오염과 파괴, 대가속의 문제만을 제기하는 쇠퇴론적 해석, 종말론적 전망은 변화를 위한 실천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기보다 냉소와 절망, 무력감을 낳을 위험이 있다.³¹ 따라서 생태환경사는 인간을 파괴의 원인으로만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에 대응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며 생태적 회복력을 갖추려고 노력해 온 행위자로도 조

의 확대와 실천적 체험, 구술 인터뷰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 감수성과 역사적 성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 30 Michelle K. Berry and Emily Wakild (2024), “22. Pedagogy for the depressed: empowerment and hope in the face of the apocalypse”, *The Routledge Handbook of Environmental History* (ed. by Emily O’Gorman, William San Martín, Mark Carey and Sandra Swart), London; New York, NY: Routledge.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분야 교수자의 팀 티칭, 생태환경 현장 답사 등을 통한 공간적 이해의 제고, 문학작품이나 여러 미디어의 활용 등 교육 방식에 대한 소개는 이미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바이다. 환경인문학의 생태교육 방식에 관한 미국의 사례는 Heather L. Reynolds, et al. (2010), *Teaching Environmental Literacy: Across Campus and Across the Curriculu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Greg Garrard, et al. (2012), *Teaching Ecocriticism and Green Cultural Studies*,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참고.

- 31 박혜정(2022), p. 194.

명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점을 교육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왕이면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도 파괴를 견디고 새롭게 변화해 왔다는 점까지 포괄할 수 있다면,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어우러진 여러 이야기가 서사로 구축될 것이다.³²

이러한 과정이 종말론이나 냉소, 무력감을 막연한 낙관론으로 대체하는 말은 아니다. 이 대목에서 사회학자 김홍중이 제시한 ‘파국주의’는 기후·생태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쇠퇴론과 숙명론을 넘어설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는 브뤼노 라투르의 논의와 인류세의 상황을 거론하면서, 인류세가 “근대적 발전/진보 개념의 실천적 가능성이 소진되었음을” 드러내고 있고, 이제는 역사의 전개를 발전/진보가 아니라 파괴의 측면을 직시하면서 파국을 사유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보았다.³³ 파국주의는 “파국에 대한 예견과 고뇌와 그것을 막기 위한 실천과 제도가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가” 된 현실, 또 파국을 돌파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제 세상은 ‘얼마나 더 생산하고 성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파국을 막고 함께 생존할 것인가’로 중심 질문을 바꿔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려는 지식과 실천, 윤리, 미학의 앙상블, 의지와 역량을 조직하는 정동이 요청된다.³⁴ 좋은 미래가 박탈당했다는 좌절감이나 파국에의 불안과 공포, 분노와 같은 정동은 여러 주체를 소통할 수 있는 행성적 연대감을 느끼게 하는 조건이 된다.³⁵

파국에 대한 감각과 정동이 곧장 녹색계급(생태계급)의 형성과 체제 전환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파국에 대한 예감을 공유하고 존재론적인 연대감을 느끼더라도 특정한 계기와 만남, 연결이 합쳐져야 할 것이다. 생태환경사 차원에서는 식민주의, 자본주의, 화석연료 체제가 만들어

32 Michelle K. Berry and Emily Wakild (2024).

33 김홍중(2025), 『가까스로-있음: 브뤼노 라투르와 파국의 존재론』, 서울: 이음, p. 319.

34 김홍중(2025), p. 320.

35 김홍중(2025), pp. 325-326.

은 문제를 역사화하고, 그 내용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생태환경사가 지향할 것은 파국을 외면하는 낙관주의도, 파국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무기력함도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인 위기와 파괴를 냉정하게 인식하면서도 다른 미래를 만들려는 ‘희망’,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거주할 조건을 복원하려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파국의 감각을 새롭게 현실의 실천으로 이어가는 차원에서 역사교육이 기여할 바가 있다. 역사교육은 흔히 과거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여겨지지만, 역사학의 상상력을 미래에 대한 상상력으로 확장할 여지도 있다.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 탐구하고 서로 다른 미래의 경로를 추체험하는 것이다. 미래 경로를 탐구하기 위하여 나옴이 오레스케스와 에릭 콘웨이의 『다가올 역사, 서양 문명의 몰락』은 좋은 사례가 된다.³⁶ 과학사학자인 글썬이그가 역사적 사례와 당대의 상황에 기반을 두고 미래를 상상해 보았다.

이 책은 2393년의 미래 역사가가 ‘반암흑기’(1988~2093)와 ‘대붕괴’(2073~2093)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쓰인 가상 역사이다. 24세기를 사는 역사가는 21세기 인류가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기술도 갖추었으면서 왜 파국을 막지 못했는지를 묻는다. 그 원인을 저자는 과학적 확실성을 지나치게 요구한 실증주의, 학문을 제도적으로 세분하는 환원주의적 학문 체계에 따라 자기 전공 분야 이외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문제, 화석연료 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탄소연소 복합체’, 정부 개입을 가로막은 시장근본주의에서 찾았다. 그 결과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식량 위기, 전염병, 대규모 인구 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서양 문명은 붕괴했다. 특히 남극과 그린란드에서의 빙상 붕괴(대붕괴)는 지구 해수면을 8m나 상승시켰고, 대이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미래는 과학적 예측을

36 나옴이 오레스케스, 에릭 M. 콘웨이(2015), 홍한별 옮김, 『다가올 역사, 서양 문명의 몰락』, 서울: 갈라파고스.

토대로 구성된 허구이지만, 그 핵심에는 ‘알고도 행동하지 않은 문명’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이러한 가상 역사는 생태환경사 교육에서 역사적 상상력을 미래 환경에 대한 상상력으로 확장하는 유용한 방법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미래 역사가의 시점에서 현재를 ‘이미 지나간 과거’로 바라봄으로써 기후·생태위기를 에너지 체제,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권력관계, 생산-소비-폐기의 문화가 결합한 역사적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과국을 필연적인 결말로 받아들이는 대신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다른 선택이 가능했는가’를 질문하며 복수의 미래를 구성할 수 있다. 생태환경사는 자연환경과 에너지 체제, 과학기술,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권력, 사회적 불평등이 서로 결합해 현재 상황에 다다른 역사적 과정을 규명한다. 과거의 선택과 경로의존성을 이해하면 현재의 체제가 필연적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미래 역시 이미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태환경사 교육은 역사 속 복합 상황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 실현되지 못한 가능성과 전환의 갈림길을 생각해 보고 현재 세대의 책임과 실천을 일깨울 수 있다. 생태환경사는 이처럼 과거를 이해하는 역사학인 동시에, 현재의 선택을 성찰하고 거주 가능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체제 전환의 인문학으로 확장될 수 있다.

4. 마치며

오늘날 인류는 여러 차원에서 지구의 행성 한계를 넘어서는 문명을 만들었으며, 이는 자연을 인간과 분리된 대상으로 간주하고 값싼 자원으로 착취해 온 자본주의와 화석에너지 체제,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근대문명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관계, 발전과 자유에 관한 근대적 관념, 분과학문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한다. 브뤼노 라투르가 언급했듯이, 새로운 기후체제에 잘 적응하

려면 이제 “생산의 확대가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의 유지를 우선 시하는” 인식의 전환, 사회문화의 변화가 필수적이다.³⁷ 대지의 것들, 새와 노동자, 박테리아, 숲 등 모든 이들이 서로 기대어 사는 법³⁸이 무엇일지를 이야기하고 상상할 힘을 길러주는 것은 자연과학, 사회과학보다 인문학의 영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인간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인간 이상의 존재와 지구시스템을 함께 사유하며 생태문명으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전환을 위한 인문학’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문학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역사학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역사학의 한 분야로 생태환경사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기존 환경사를 넘어, 인간중심주의와 근대문명의 착취 구조를 비판하고 현재의 위기를 역사화하는 실천적 역사학으로 제안된다. 이 글에서는 생태환경사 연구와 교육의 방향을 살펴보고 체제 전환을 위한 인문학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생태환경사 연구는 크게 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위기가 형성된 역사적 경로와 책임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후변동과 사회의 대응, 화석에너지 체제와 대가속,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피해의 불균등성 등을 추적하는 연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동물·식물·미생물이라든가 물·토양·광물·에너지 물질 등 인간 너머의 존재를 역사의 주체이자 행위자로 소환하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역사 역시 다양한 생명과 물질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드러내며 지구행성 내 새로운 관계성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체제를 상대화하고 전환의 가능성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과거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커먼즈와 생태적·민주적 자원 관리, 탈탄소 사회를 설계하기 위한 비판적 비교 자료로서 역사적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

37 브뤼노 라투르·니콜라이 쉘츠(2022), 이규현 옮김, 『녹색계급의 출현』, 서울: 이음, p. 32.

38 브뤼노 라투르(2021), pp. 124~125.

생태환경사 교육은 첫째, 기후·생태위기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권력관계, 취약성과 회복력을 분석하는 역사 문해력을 기르는 등 생태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기후과학의 정량적 예측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회적 결과를 역사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환경 갈등 사례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환경정의를 토론할 수 있다. 둘째, 동식물과 미생물의 행위자성을 인식하는 ‘다종 감각’을 기를 수 있다. 인간 너머의 여러 존재가 공생하는 관계를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자연과학·사회과학·문학·예술을 결합한 팀티칭, 현장과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생태답사와 구술 인터뷰, 문학·예술 자료 활용 등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교육의 방향은 파괴와 쇠퇴만을 강조하는 종말론적 서사를 넘어, 파괴의 감각을 익히며 함께 생존하는, 인간과 비인간이 보여준 대응과 회복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는 방향이 좋을 것이다. 미래 역사가의 시점에서 현재를 돌아보는 가상 역사라든가 복수의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생태환경사는 과거를 설명하는 학문을 넘어 현재의 책임을 성찰하고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거주할 미래를 설계하는 체제 전환의 인문학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글은 새로운 인문학으로서 ‘전환을 위한 인문학’을 제안했지만, 아직 시론적 논의에 머물렀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원리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체제 전환은 여러 방식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환을 위한 인문학’과 생태환경사가 어떻게 이론적·방법론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정밀한 숙고가 필요하다. 생태환경사는 자연과학의 성과, 정치경제에 대한 사회과학에서의 분석, 문학과 예술의 상상력 등 여러 학문 분야와 대화하면서 위기의 역사적 원인과 미래의 대안 제시를 향한 역사적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다학제 연구와 교육의 실천을 통해 체제 전환을 위한 발판으로써 새로운 인문학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이 스탠딩(2021), 안효상 옮김, 『공유지의 약탈: 새로운 공유 시대를 위한 선언』, 파주: 창비.
- 건국대 인류세인문학단(2020),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 1·2, 파주: 들녘.
- 고태우(2023), 「대가속의 어두움: 20세기 한국의 역사는 발전의 역사인가?」, 『역사학보』 257, 역사학회.
- 고태우(2025), 「연구노트: 한국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 생태환경사」, 『생태환경과 역사』 14, 한국생태환경사연구소·한국생태환경사학회.
- 공혜정·김지연·이현숙(2025), 「『생태환경과 인간』 대학 교양 교과목 개발 사례 연구」, 『생태환경과 역사』 15, 한국생태환경사연구소·한국생태환경사학회.
- 구도완(2018), 『생태민주주의』, 대구: 한터재.
- 김덕호·박진희·이은경(2026), 『지구를 태워 만든 풍요: 탄소 문명의 빛과 그늘』, 서울: 에코리브르.
- 김옥동(2021), 『환경인문학과 인류의 미래』, 파주: 나남출판.
- 김종철(2019),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서울: 녹색평론사.
- 김홍중(2025), 『가까스로-있음: 브뤼노 라투르와 파국의 존재론』, 서울: 이음.
- 도나 해러웨이(2021), 최유미 옮김, 『트러블과 함께하기』, 서울: 마농지.
- 문만웅·김미숙 엮음(2025), 『동물, 환경, 그리고 한국 과학사』, 서울: 솔과학.
- 박혜정(2021), 「역사와 기후의 조우: 지질적 행위자로서의 인류를 위한 기후사」, 『문화역사지리』 33-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박혜정(2022), 「역사, 기후, 교육: 인류세 시대 기후사 연구와 교육」, 『역사교육논집』 79, 역사교육학회.
- 박혜정(2024), 「기후위기 시대의 융합교양교육: 기후과학, 지구시스템과학/환경과학, 기후사를 주축으로」, 『교양교육연구』 18-1, 한국교양교육학회.
- 브뤼노 라투르(2021), 박범순 옮김,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서울: 이음.
- 브뤼노 라투르·니콜라이 슬츠(2022), 이규현 옮김, 『녹색계급의 출현』, 서울: 이음.
- 송충기(2018), 「역사학에서 ‘동물로의 전환(Animal Turn)’」: 짐승의 사회문화사에서 포스트휴머니즘」, 『서양사론』 139, 한국서양사학회.
- 송충기(2022a), 「19세기 독일지역 동물보호협회의 초기 담론: 인간중심주의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동화(同化) 관계로」, 『독일연구』 50, 한국독일사학회.
- 송충기(2022b), 「역사 속의 비인간: 포스트휴머니즘 역사학의 현황과 쟁점」, 『역사학보』

256, 역사학회.

아네테 케넬(2022), 홍미경 옮김, 『미래가 있던 자리』, 서울: 지식의날개.

양홍식·권오수·김택경·김경옥·안재익(2025), 『검은 물질의 혁명 : 현대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 선인.

오항녕(2023), 「공유지(the Commons), 문명사 전환의 키워드」, 『생태환경과 역사』 11, 한국생태환경사연구소·한국생태환경사학회.

오항녕(2025a), 「조선시대 일상과 피난, 그리고 공유지(共有地): 오희문(吳希文)의 『쇄미록(瑣尾錄)』에 나타난 생존과 생계」, 『인문과학연구』 84,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오항녕(2025b), 「조선시대 고기잡이와 생존·생계: 공유지 천택(川澤)의 선물」, 『생태환경과 역사』 14, 한국생태환경사연구소·한국생태환경사학회.

이명희·정영란(2020), 『모빌리티 생태인문학』, 서울: 엘피.

이종식(2025), 「동물사(Animal History)의 문제의식과 서사 전략: 영어권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65, 역사학회.

전국역사교사모임(2024), 『더 늦기 전에 시작하는 생태환경사 수업』, 서울: 휴머니스트.

조효제(2025), 『불타는 지구에서 다르게 살 용기』, 파주: 창비.

캐럴린 머천트(2022), 우석영 옮김, 『인류세의 인문학』, 서울: 동아시아.

토마스 베리·토마스 클락(2006), 김준우 옮김,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인간과 지구의 화해를 위한 대화』, 고양: 에코조익.

필립 클레이튼·윌리엄 앤드류 슈워츠(2023), 이동우 옮김, 『미래는 생태문명』, 서울: 산 현재.

허남진·조성환·이원진(2023), 『어떤 지구를 상상할 것인가: 지구인문학의 발견』, 서울: 모시는사람들.

Berry, Michelle K., and Emily Wakild (2024), "22. Pedagogy for the depressed: empowerment and hope in the face of the apocalypse", *The Routledge Handbook of Environmental History* (ed. by Emily O'Gorman, William San Martín, Mark Carey and Sandra Swart), London: New York, NY: Routledge.

Brázdil, R. et al. (2023), "DOCU-CLIM: A Global Documentary Climate Dataset for Climate Reconstructions", *Scientific Data* 10, 402, <https://doi.org/10.1038/s41597-023-02303-y>.

Chakrabarty, Dipesh (2021), *The Climate of History in a Planetary Age*,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디페시 차크라바르티(2023), 이신철 옮김, 『행성시대 역사의 기후』, 서울: 에코리브르].

Degroot, Dagomar et al. (2021), "Towards a rigorous understanding of societal responses to climate change", *Nature* 591, <https://doi.org/10.1038/s41586-021-03190-2>.

Garrard, Greg et al. (2012), *Teaching Ecocriticism and Green Cultural Studies*,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Lee, John S. (2017), "Protect the Pines, Punish the People: Forests and the State in Pre-

- Industrial Korea, 918-1897", Harvard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Planetary Boundaries Science (2025), *Planetary Health Check 2025: A Scientific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Planet*, Potsdam: 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
- Reynolds, Heather L. et al. (2010), *Teaching Environmental Literacy: Across Campus and Across the Curriculu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Robin, Libby et al. (2025), "Transdisciplinary Histories and the Rise of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Global Environment* 18(1), <https://doi.org/10.3828/whpge.6383764662251>.
- Schmidt, Matthias, Jens Soentgen, and Hubert Zapf (2022), "Anthropocene: Perspectives from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DIE ERDE – Journal of the Geographical Society of Berlin* 153(3), <https://doi.org/10.12854/erde-2022-618>.

원고 접수일: 2026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26년 8월 9일, 게재 확정일: 2026년 8월 10일

ABSTRACT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History as a Humanities for Transformation

Ko, Tae-woo*

Historicizing Crisis and Envisioning the Future

Modern civilization, founded on capitalism, fossil-fuel energy systems, and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has exceeded planetary boundaries and reached its own limits. This crisis is not merely an environmental problem; it calls for a fundamental re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modern conceptions of development and freedom, and the existing structure of academic disciplines. What is therefore needed is a “humanities for transformation” that considers not only humans but also nonhuman beings and the Earth system, and that contributes to the transition toward an ecological civilization.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history is a form of engaged and practice-oriented historical scholarship that can participate in this transformation. Its research may proceed in three principal directions. First, it should clarify the historical pathways and structures of responsibility that have produced the present crisis by examining climatic change and societal responses, the fossil-fuel energy regime and the Great Acceleration, and

www.kci.go.k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unequal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arm. Second, it should bring more-than-human beings into historical analysis as historical agents, thereby demonstrating that planetary history has been shaped not by humans alone but through interactions among diverse forms of life and material entities. Third, it can use historical cases to relativize the present system and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commons-based practices, a circular economy, and a decarbonized society.

Education in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history can strengthen the capacities of ecological citizens by fostering historical literacy through which students understand climate and ecological crises historically and analyze social conflict, power relations, and resilience. It should also cultivate a multispecies sensibility that recognizes the agency of nonhuman beings and should combine the natural sciences, social sciences, literature, and the arts in ways that enhance ecological awareness. Furthermore, while developing an awareness of catastrophe, such education can simultaneously present the possibilities of response and recovery among both human and nonhuman beings. By considering multiple future scenarios, it can provide opportunities to reflect on how present choices may transform the future. Eco-environmental history can thus expand beyond the explanation of the past into a humanities for transformation that helps design a future in which humans and more-than-human beings can dwell together.

Keywords Humanities for Transformation,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History, Capitalism, More-than-Human Beings, Historical Literacy, Catastrophe, Ecological Citizenship, Ecological Civilization

